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0월 13일 (제711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92-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생각이 결과다

나는 한동안 커피를 안 마셨다. 왜냐하면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다. 대신 나는 립톤티를 즐겨마셨다. 그런데 얼마 전에 커피보다 립톤티에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실제 나는 어쩌다 커피를 먹으면 잠을 쉽게 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카페인이 더 많이 든 립톤티를 먹고는 잘도 잤다. 이걸 예전 군대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두통약이 없어 소화제를 썼더니 아픈 것이 씻은 듯 나았던 것과 일반이 아닌가? 이 일은 '생각이 결과'라는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이 반영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생각의 힘이다.

오래 전 일본 집회에 갔을 때, 내 제자가 심각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목사님, 일본 마귀는 진짜 쎄니다.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아! 이 허탄한 사람아, 일본 마귀가 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귀신을 못 내쫓는 거야. 일본 마귀, 한국 마귀가 어디 있나? 마귀는 원래 한 놈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라고 말했다.

생각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그래서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고, 생각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된다. 과거에 내 생각이 어떠했으며, 지금 나는 어떠한지 한 번쯤 나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곧 들리는 말로 나타나고,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중요한 이유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고, 생각을 키우면 세계가 네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니라.

강한 자만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다

"대결의 구도로 갈 것이냐, 협력의 구도로 갈 것이냐?" 이는 지난 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었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성회'의 주제였다. 사실 답은 자각히 자명하지만, 문제는 그 실천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끌고만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폭압적인 정권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무력으로 짓누르며 갈등을 잠재우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한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자각히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면 왜 기독교 문화가 감점을 갖는가? 기본적으로 한 인간을 하나님에 창조하신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이다. 인권을 중시하고 그를 각자가 갖는 생각이나 행동, 욕구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기에 그만큼 갈등을 해소해가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에서 강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화란 서로를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 발짝도

다.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가진 것 없이 자존심만 앞세우며 피대를 올리는 상대를 잠재우려면, 상대의 자존심에 거슬리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언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예수 그리스도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자신의 몸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성회(2013년 10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

그런 식으로는 결코 생명력이 길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갖고 있고, 그러기에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 중 그나마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수립된 정부가 정통성을 갖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갈등해소라는 측면에서 다른 여타 제도보다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그를 운영하자는 사람인지라 사회구성원 각자가 갖는 기본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에 노예처럼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원하고,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고 싶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하기에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도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해갈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은 용납지 못하는 자세는 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를 알잡아보는 태도, 무조건 갈등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자세로는 결코 갈등을 해소해갈 수 없다. 이 땅에 대화와 타협보다 늘 정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통 큰 자세가 필요하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자주 강조하신다. "강한 자만이 먼저 양보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배운 것 없이 예의범절을 모르는 것들이 소리치며 노이즈 마케팅을 일삼는

내어주는 사랑을 주셨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이상의 더 큰 문화는 없다. 이 땅에 들끓는 수많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문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뿌리내리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실천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전했다. 이 문화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땅에 물들게 해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 영혼구원과 함께 지역,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한다.

Henry
henry7857@naver.com



이초석 목사 과테말라 집회

일시: 2013년 10월 15일(화) ~ 24일(목) 장소: 과테말라시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3:1~13)

우리 모두 협력의 구도로 가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잠15:18),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에 집에 가득 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7:1),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어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20:3), 모두 ‘다투지 말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투면 불행할 뿐 아니라 공멸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잘합니다. 죽을 바에는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맞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싸우면 진짜 둘 다 죽습니다. 한서(漢書) 전국책(戰國策)에 방축상지 어옹득리(蚌鰲相持漁翁得利)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물고 싸우면 지나가던 늑은이 아무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좋아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를 도요새가 부리로 쪼니 조개가 도요새의 입을 꼭 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적 싸우고 있을 때, 마침 어부가 이를 보고는 도요새와 조개를 잡아 망태 속에 잡아넣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로, 이 말을 줄여 ‘어부지리(漁父之利)’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 분쟁하면, 서로 대결하면 남 좋은 일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노사가 서로 싸우면 경쟁업체만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남북이 싸우면 분명 이득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야가 자주 싸우면 열썬나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결은 멸망과 불행이요 협력은 성장과 행복이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진정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누구를 이롭게 하는 싸움입니까? 뱀도 자기네끼리 싸울 때는 독을 품지 않고, 말도 싸울 때 머리로 밀랑정 절대 치명적인 뒷발질은 안한다고 하는데, 왜 한 술 밥 먹는 노사가 싸웁니까? 왜 한 배를 탄 사람들끼리 다투고, 왜 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끼리 대립하고, 한 가족끼리 대결합니까? 어부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도 생깁니다. 여야가 싸우면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애꿎은 국민만 힘들어지고, 노사가 싸우면 그 파급이 영세 협력업체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좋을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할 때,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족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라”(창13:8). 피붙이끼리 싸우지 말자, 싸워서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라”(창13:9)하며 싸움을 피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막3:24-25).

저는 남북관계가 자주 대치국면을 맞게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주 만들고, 터무니 없는 억지리를 부리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대결과 대립이 아

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에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고전13:4-7).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요13:34). 제가 늘 말하는 파도와 모래 이야기 아시지요? 파도가 물려올 때 바위는 맞받아쳐서 싸우니까 서로 상처를 내지만, 모래는 물려오는 파도를 다 받아주며 성난 파도를 잠재웁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잡아주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모래가 되십시오. 그러면 대립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줄다리

기를 해보셨습니까? 줄다리는 절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협동하고 협력해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초일류 기업을 꿈꾸십니까? 노사가 하나 되어 영차영차 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일등 국가를 꿈꾸십니까? 여야가 하나 되어 영차영차 할 때 선진국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가족이 하나 되어 영차영차 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은 성장이지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립과 대결은 멸망이요, 불행입니다. 바다에 사는 게는 물고 뜰데 선수입니다. 게를 큰 그릇에 담아놓으면 밖으로 나오려고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게가 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를 잡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놈이 또 끌어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게를 두 마리 이상만 넣어놓으면 거의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뜰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감5:15). 게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슬 우화 중 네 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는 황소 네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들은 풀을 뜯어 먹을 때도, 쉴 때도 언제나 함께 해서 어떤 것들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니, 바로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황소 주위를 돌며 호시탐탐 황소를 노렸지만, 네 마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조금 뒤쳐진 황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네들이 그러는데 네가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없다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황소가 기본이 상했습니다. 사자는 다른 황소에게도 다가가 “저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힘이 제일 딸린다면?” 이 말을 들은 황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끝끝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황소들은 한 마리씩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우게 하고,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래 사람들 사이에 화기를 막아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놈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오직 다투고 싸우려고만 했던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결국이 어찌했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도 마귀의 꾀에 매여 대립과 대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곧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더해지는 삶,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서로 협력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친구의 병도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명이 협력하고 협동하니 사람이 많은 중에도 자분을 뚫는 기지를 발휘하여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출보다 삼겹 쫄이 나온 법입니다(전4:12). 이제 대결의 구도를 버리고 협력의 구도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합력투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타협의 기술

미 상하원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신규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2013년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연방 정부기관의 비 핵심 업무는 모두 일시적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강제휴가를 받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일컬어 “셧다운”(SHUT DOWN: 부분 업무정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통상업무 및 영사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보증서명에 따라 국방지출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립공원 및 국립박물관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의 모든 곳은 사실상 휴업 또는 휴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발생원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성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인데,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핵심은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보험체류자,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는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입니다. 이는 10월 1일부터 이미 가입의무화가 시작되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위의 시행방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산국(CBO)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될 시 10년간 총 1조 7천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미국의 GDP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1%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에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나 유럽과 같이 국영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용의 절반을 민영보험회사와 미국 정부가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의 정치권 갈등은 부채한도 증액의 협상까지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정부쇄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부채한도 증액 협상마저 10월 17일까지 조정되지 않을 시 연방정부의 현금보유액이 모두 고갈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사태에 빠지거나 승인시점이 늦어질 경우 2011년도와 같이 신용등급의 하락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승인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장은, “내부적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관행적 규칙을 깨더라도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사태는 방지 하겠다.”라고 발표하여 최악의 국면은 피할 것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그리고 위정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

지혜가 제일이다

점심을 거나하게 먹은 사자가 있는 대로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더니만 양에게 물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 번 맡아봐라.”

양은 사자가 시키는 대로 사자 입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사자님, 양치 좀 하셔야겠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자는 “고약한 냄새, 버릇없게 시리 감내 내게 그런 말을 해?” 하며 한 입에 양을 잡아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사자는 늑대에게 똑같이 “내 입에서 냄새가 나니?” 하고 물었다. 그러자 늑대는 “사자님,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자님 같은 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사자는 “간사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내 비위나 맞추려는 놈이야.” 하고는 늑대도 잡아먹어버렸다.

이제 여우차례가 되었다. 역시 사자는

여우에게 동일하게 물었다. 그러자 여우는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사자님,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네요.”라고 했다. 감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다는 데야, 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낮잠을 즐겼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네가 만일 지혜로 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니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잠9:12),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다는 데야, 사자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전7:12).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잠2:7),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약1:5).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예수중심편집실



::Praise the God::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합령무야, 합령무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의 작사자 히윗 여사는(Eliza Edmunds Hewitt, 1851~1920) 어느 날 불량 청소년을 교화하다가 등뼈를 얻어맞아 장장 7개월을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았다. 평소 신앙이 굳건한 그녀였지만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다 보니 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소년에게 미움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성이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자 히윗 여사는 버럭 역정을 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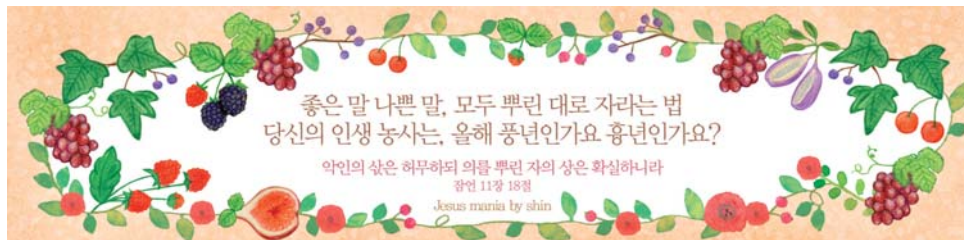
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에 온몸이 감전되는 듯한 충격을 받은 히윗 여사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을 회개하며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한다. 이후 척추가 자연스럽게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을 해한 소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의 55%에 3도 화상을 입고 십 수 년 간 40차례 수술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온 이지선 씨(36). 그녀는 그나마 발은 멀쩡해서 씻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고 했고, 손가락 중 왼손 하나가 멀쩡해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다행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그

는 사울에게 쫓기던 십 년의 시간과 아들 암살품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던 고달픈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했고(시136:1),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한 악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도리어 기뻐했다(고후12:7-10). 이들의 전전후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인정하시고 아끼셨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조건부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범사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감사의 생수를 타트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쏟으신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나라의 명건인 진돗개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일화는 많습니다. 팔려간 곳에서 주인을 찾아 7개월간 300km를 달려온 이야기, 옛돼지와 같이 자신보다 큰 신념을 앞세워 주먹 들고 맞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운 이야기...

그런데 이 진돗개와 동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아무리 강하고 사나워도 자신의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이나 도둑, 다른 존재인 것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사납게 덤벼듭니다.

반면에 동래는 상대가 주인이든 아니든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들며 반깁니다. 게다가 겁이 많아서 도둑이 들거나 자기보다 울음소리가 큰 개를 만나면 무서워 달아나거나 숨기 비뻔합니다.

온유한 것과 온순한 것은 다릅니다. 원래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와 같이 힘이 있는 동물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그 능력을 제어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꼬리를 흔들며 마음을 주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위축되는 동개는 온순할 뿐이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진돗개는 그 주인 앞에서는 부드러운 충견이지만, 바깥에서는 사나운 맹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선 그 분께 온전히 길들여져서 충성되고, 그 밖의 세상 권세와 악한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 앞에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됩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cdm@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파도야, 잠잠하라!

여자 프로골프(LPGA)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박인비 선수는 26세에 메이저대회 3연승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녀는 남보다 뛰어난 장타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스윙포즈 역시 아마추어 같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갖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정심'을 이야기한다. 공이 병커에 빠지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내도 그녀는 언제나 평온한 표정을 유지할 만큼 평정심 유지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녀처럼 감정의 파도를 누르고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을까?

먼저, 평정심은 확고한 믿음위에 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을 때, 배가 광풍을 만나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까 안절부

절못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굳히 주무신다. 예수님이 그날따라 피곤하셨을까? 아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니 그저 몸이 피곤해서 깨어나지 못하셨을 리가 없다.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파도야,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견고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시위하는 것은 사자와 함께 있는 양이 늑대를 무시위하는 것과 같다.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향한 신뢰,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정심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다. 성령시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은 복

음을 전하다 법정에 소환되었다. 이 법정을 소집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로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재판관 주재했던 인물이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법정에 서면 긴장과 두려움에 평온과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스테반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조차 놀랄 만큼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복음을 선포했다(행 7:1~60). 그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경에는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당대 유명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행 6:8~12).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두려운 광풍, 적대감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솔로몬은 일천 첩을 두었으며, 금과 은을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사용하였고, 향기는 백향목을 뿜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하였으며, 날마다 그의 식탁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하였습다. 한마디로 가슴에 품고 싶은 것은 다 품어보았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았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인생 만년에 기록한 전도서에는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출중한 지혜를 받았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만 늘어남다며 자신의 체험을 통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재물도 죽음과 더불어 후손이나 타인에게 돌아가지도 뒤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를 인생입니다. 창고에 가득한 금은보화가 결코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줄 수 없으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를 읽다보면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잡으려고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속적인 목표나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속적인 목표는 결국 '가짜 소망'인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인생 만년에 깨닫게 된 소중한 진리는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며 복음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인맥(人脈)은 금맥(金脈)

인적 네트워크의 소중함을 최고로 잘 표현한 문구가 "인맥은 금맥"이라는 표현이다. 인간관계가 돈줄기와 같다는 뜻이다. 어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관계의 소중함을 단적으로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사람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교사와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과 친지들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스승은 자녀의 전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스승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이다.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부모

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친구는 가족과 더불어 평생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지 시켜주면서 친구와의 의리를 소중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얼마 전 여행을 다녀 온 딸아이가 "엄마 덕분에 친구와 함께 여행지에 있는 동안 공주처럼 대접을 받고 왔어요. 엄마가 뿌려준 것을 제가 추수해 먹는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부모 주위의 지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게 모르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자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인지를 품소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

인맥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수표와 같음을 깨닫게 하여 어려울 때 한 톨의 돈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스쳐지나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조차 의미를 찾아내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지 없이 '의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도리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소중한 인맥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리는 인생을 살다가 후시 자녀에게 찾아올 수 있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되는 동시에, 인간의 기본도리라는 것을 자녀에게 매일 가르쳐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오자유

oh free@hanmail.net

Q&A

Q: 최근 기독교계에는 교회문제로 인하여 법정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쌍방 간에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벌이는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1절에는 성도들 간의 소송문제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송사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책망하며, 세상의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법정소송에 휘말려 이전투구(泥田鬭狗)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과 용서의 법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저급한 수준의 세상법정을 의지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끼리 일어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상처를 남기는 부끄러움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상법정에서 송사할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의 우월성을 깨닫고 화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교회의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대 정미여,
아름답기가 천하 제일이러지만
가시가 있더니 제발이요
가까이 하자니 다칠세라 두렵고
멀리하자니
그대 향기 떠날까 두렵소
그러니 어쩌랴 말이요
불가근 불가원이라요!

朋友